

在日大韓基督教會
宣教70年을 향한 標語

1. 教會에 革新을!
2. 社會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THE GOSPEL NEWS

11月15日(月) <1976年> 第328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202)5398番

発行人 崔京植・編集人 金君植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20円

昭和38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宣教七〇周年 記念事業推進委選定

宣教七十周年(一九七八年)을 앞두고 우리 총회는 여러 가지記念事業을 計画推進中에 있으나 지난 第32回定期總會에서는 이를 적극推進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委員을 選定하였다.

推進委員 金元治, 黃義生, 權泰岳, 金信煥, 金得三, 金德成, 洪永其, 金君植, 金炯卓, 申鉉錫, 金光洙, 孟哲輝, 李海春, 尹宗銀, 金君植, 吳允台, 李仁夏, 白炳洙, 韓在秀, 壽仁

감사절特別集會

大阪・神戸東部教會

大阪教會와 神戸東部教會는 감사절을 앞두고 추기전도집회를 가졌다. 많은 은혜를 받은



1976年度 추수감사절

韓・日教會 協議會開催

서울서

第3回韓・日教會協議會가 오는 11월 22일(24일) 서울에서

秋季修養會を開催 西南地方青年會

去る十一月六、七日の両日、西南地方青年會は恒例の秋季修養會を開催した。場所は、博多市郊外の山に少し入り込んだところにある国民宿舎で、天候もよく、はるか彼方に博多湾を臨むことができた。

参加者は両日合わせて約二十名程で、例年より少し出足が鈍ったといわれる。その代わり、参加者の比率では独身青年の参加が目立ち、ある家族連れで参加された年輩の青年は「そろそろうちの青年會も若返りの時期か」と呟いておられた。

プログラムは、一日目は下関教會の申鉉錫牧師による聖書講演が行なわれ、「基督教青年運動の現状と課題」という主題の下に、新約における使徒たちの殉教的な異邦人伝道の意義と今日の複雑な政治的混乱の闇の中に置かれた同胞社會における福音宣教の意義とが類比的に考察され、語られた。

又、二日目には福岡教會の崔正剛牧師の奨励で礼拝が持たれ、その後、参加者全体の討論會が行なわれた。そこでは、これからの青年會活動として、生活協同組合を基盤に据えた在日同胞運動の推進の意義ということが発題された。これは、今日在日同胞社會が同胞運動の基盤を失い、日本社會の抑圧構造の中に泣き寝入りの埋没せざるを得ない現状についての反省をふまえ、生活協同組合の活動という生活に密着したきわめて身近な關を通じ、在日同胞の人間的交流から民族運動に至るまでの基盤の構築を目指すというものであった。

発題後の討論會においては、青年會活動の有り方としてどのような新しい取り組みを始めていくべきかという意見、教會の宣教との関連がいまひとつ不明確ではという意見、又その具体的な運動論については当面している深刻な問題について考えねばならないのではという意見などが出され、結論的には今後さらに討議を要する問題として残された。

又、今回の修養會に招かれた關東と關西の青年會全協の中央委員二名から、金哲顯神學生を中心として、今日、在日韓國教會を取り組まねばならない深刻な問題について報告がなされた。



西南地方青年會の秋季修養會

第2回任職員會 개최 通知

一九七六年度 第二回任職員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함을 通知합니다.

日時 12月2日(木)午後7時~3日(金)午前12時

場所 西成教會

議題 ①各局、各機關의 報告 및 新年度 活動件(第32回定期總會時 回附된 案件을 包함)

一九七六年十一月十一日 在日大韓基督教總會 總務 崔京植

東和食品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李 東 和

東京都江東区永代2-11-3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①第5426号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 光 洙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八千代通3丁目11番地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太栄ビル)
電話 052(682)1177(代)
自宅 名古屋市千種区猪高町猪子石原宇太田
電話 052(771)5952

總會의 총무總括報告(續)

지방법에 중앙법에 면회



朴 米 雄

가치 見解가 서로 質的差異가 있다고해서 相合되지 않는 問題는 아닌것으로 본다. 金哲顯事件은 과거 一年間 史的 試練이고 그로인하여 우리 信仰의 큰아픔속에 교회가신 을한것은 事實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지 못 할 試練을 주심이 아니라 이 試練을 통해 우리 총회안의 老年 壯年 青年 婦人 各階層의 서로의 생각을 理解하고 더욱 깊이있는 信仰을形成함으로써 오히려 試練속에 소망은 바로고 나갈수있는 契機가 된것을 감사히 생각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金哲顯君의 앞날에 새로운 삶이 展開되기를 간절히 기도 하는바이다. 이문제의 解決을 위하여 總會산하各敎會와 機物心面으로 아낌없이

會를 살리는 精을 미기때 문에 받든줄 안다. 특히 救出委員會 第一審判決까지)와 敎命委員會一同 委員長洪永其(목사)의 格別한 수고 및 數次에 걸친 祖國訪問과 交涉 그리고 지난번 二審判決時에 總會長金元治목사를 비롯한代表 5名(金元治總會長、吳允台 總幹事總會長、李仁夏總幹事總會長、洪永其委員長、俞錫湯KCC館長)의 派送으로 母國敎會의 協力を 얻어 朴大統領에게 탄원하게되며 또한 上記 5名은 金哲顯君의 率直한 心情을게되어 그것으로 祖國敎會와 우리 교회간에 이문제에 대한 보다 明確한 理解를 밝히게 되었다. 이러한 渦中에 있으면서도 敎育局은 그活動目標을 계속했으며 各種研修會(敎役者 長老連合、全國青年修養會、全國高等部夏季學校

말로 끝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전쟁에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좋을지 모를 때가 얼마라도 있습니다. 기도의 말이 없어도 는 경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에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외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아실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와 같이 계시며 우리의 생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이십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약한을 받아주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약한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橫須賀伝道所講道師)

우리의反省은 우리總會 안에서 좀더對話를 통한 相互理解와 協同의努力을 더해 가는 教育과 民族教育의 活潑한 振興의 必要를 切實하게 느낍니다.

金元治 목사
說教集出版

記念会案内

本會의 총회장 金元治牧師가 설교집 「한마음의 신앙」을 출판하여, 오는 12月2日 西成教會에서 出版記念會를 열게 된다.

金元治牧師는 約30年의 牧會를 하는중에 남긴 설교를 모아 한권의 책으로 내게 된 것이다. 各方面으로부터의 격려와 축하를 바라며, 출판을 바라고 있다.

高級婦人服製造卸

OK 商 会

金 京 秋

本町店 大阪市東区船場中央4丁目1番地
船場センタービル8号館2F281号
電話 大阪(06) 251—5444番

自宅 大阪市東成区東小橋3—4—12
電話 大阪(06) 981—2980番
974—7715番

札幌教会、創立十周年 맞아

禮敎敎會는 創立十周年을 라 보면서, 北海道伝道團 伝 道の 비문을 절고 가운 伝道 集會를 지난 11월 4일부터 14 일까지 函館에서 시작하여 旭 川 札幌 苫小牧 四個都市에 서 가지 많은 은혜를 청중 에게 주었다. 講師團 伝道局幹事 田永福 牧師를 외치고 세가지 形態 의 集會를 가졌는데 ①同胞 를 위하여 ②日本敎會에서 解를 위하여 ③韓國교인의家 庭集會이다.	동시에 映画, 殉敎譚"를, 函館韓國學園(6日) 札幌韓國 敎育文化센터(8日) 旭川韓國 敎育文化센터(9日)에서 上 映하여 모인 청중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李聖柱牧師는 北海道伝道團 으로써 七敎會 設立을 目的 으로 우선 旭川교포70世帶) 函館(同50世帶 苫小牧(同50 世帶)에 重點을 두고 家庭 集會로 부터 시작하고 있다 고 강조하였다.	덧되어, 一九六七年에 方好善 女史가 代表者로 취임하였다 그간 서울시의 위탁사업으로 로 무단가솔少女, 上京少女들 을 보호하는 少女一時保護所 를 설치, 기독교정신으로 善 導해왔다. 韓國의 近代化에따라 女性 의 就業率이 높아 집과동시 에 문제가 생기뒤에 치료하 는것보다 예방적인 사업이시 급함을 깨닫고 서울 영등포 구 가리봉을 한국산업수출 업단지 九老工団내에 約二百
---	--	---

勤勞女性事業の方好善원장



來日하여 各方面에 協力을 요
청하고 있다. 지난 第32定期總
會에서는 금년도 성탁절獻金
에서 協力하기로 결정하였다
社会福祉法人 수난나회는 一
九五八年에 田善愛女史(故조
만식先生未亡人)에 위하여

밝힌바에 따르면 이들
의 勤勞女性들은 自身들의生
活과 주위의 文化的 価値
社會的 価値사이에서 심한 苦
痛을 느끼고 있으며, 또 무
려한 기술이나 安정된 기
이 없이 飢餓을 따라 一年

韓国YMCA 주최로 關東地方



지난 11월 3일, Y M C A 주최로 관동지방의 교역자(橫濱教會, 船橋教會, 西新井教會, 調布教會, 総会총무, 新宿教會 코리언차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相模湖의 크닉 그란드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關東地方에는 총회산하교회 외에 몇교회가 있으나 지금까지 相互間的의 교제가 없었으므로, 금번 Y M C A가 추진하여 교역자와 家族이 한 곳에 모여 친목을 도모할수 있게 되었는것이다.

교역자는 교역자끼리 환담하며 夫人들도 夫人들끼리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어린 이들은 힘껏 뛰어다니며 都市에선 맛볼수 없는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総
会
任
員

台風17號로 岐阜地方이 큰
피해를 받았는데, 本總會에서
도 社会局이 中心이 되어 對
策을 강구하여 義捐금의 모
금을 제32回定期總會席上에서
도 호소함과 적극적인 協力
이 있어 지난 10月22日, 金
君植社会局長, 黃義生副會長
朴俊俊中部地方社会部長, 姜榮
一牧師들이 피해자신도자정읍을
찾아가 위문하고 損援金을전
달하였다.

이번피해는 岐阜教會 信徒
中, 五世帶가 큰 손실을 받
았는데 岐阜教會는 無牧교회
로서 金柄其長老를 中心으로



二回以上 職場을 옮기는 率
이 52%以上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와 같은 勤勞女性들에게 敎
養講座, 生活敎育(家庭經濟,
育兒法, 料理學)相談室(人生
相談, 就職相談, 結婚相談)寄
송등을 포함한 施設로 地下
一層, 地上三層을 約一億圓으
로 建設할 計劃을 추진하고
있다.

方好善院長은 事業을 完
成시키기 위하여 各方面에協
力を 요청함과 동시에 一九
七四年, 學生時代의 親旧를찾

아 來日하여(一姉妹福祉院施設
擴張後援會(會長 宗像正子女
史)를 発足, 지난 11月2日
에는 早稻田의 아마고에, 日
本基督教婦人矯風會 会頭 小
野すみ女史를 비롯하여 加藤
亮一牧師(財団法人東南아세아
文化友好協會) 崔京植總務等10
余名이 參席하여 10日 帰國
하는 方好善院長을 위로 격
려하는 모임을 가졌다.
方好善院長이 帰國할때까지
最善을 다하여 募金한것을 다
집하며 기도로써 方女史를 격
려하였다.

『秋收後』의 헨리·알포드

찬송가
작가들

가사하라	조수찬송	초운겨울	열려있게	하나님이	인용양식	주의전에	조수찬송
조운해	부르자	오기전	거두자	우리게	주시니	모여서	부르자

24) 30의 말줄을 기초로 하여 된 秋收感謝節 讚頌으로 가장 優秀한 것의 하나로, 이 찬송이 알포드를 讚頌歌 作者로써 成功하게 한主因이 되었다고 까지 말할 수 있다.

作者 알포드는 一八一〇年 11월 24日에 英國의 聖書註解者로서 說教者의 職을 맡고 있던 때에 英國의 國教會 以外의 教人들에 대한 平生的 態度는 그

十月七日 英國 倫敦에서 出
生하였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早熟한 便이어서, 傳하
는 말에 依하면, 여섯살때 「바
울의生涯」라는 글을 이미 쓰
고 있었다 한다.

열한살때는 그가 즐기는 讚頌歌選集」을 편집하였고, 열여섯살때는 이미 다음과 같은深刻的한 信仰의 告白을 쓰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앞에서 오늘도 산다. 내靈은 그로말미암아 새로운을 입는다. 그러므로 나는 完全히 하나님 의 것이되기를 願히하며 最善을 다해 그의 일을 한다」

一八二三年, 그는 캄부리지 敎派에 入속을 만치 않았었다. 그러므로 그 條件으로 먼저 그리스도를 懺悔로 사람들에게 傳하여주는 사람일 것과 敎派를 수위에 두지않는 사람일 것, 다음으로는 非國敎徒임지라도 敬虔한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自己(國敎徒들과 조금도 差異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일 것 등

의 트리니티 대학을卒業하였다. 그는 一八五七年 즉, 48才 고 그의才能과信仰과學識은公認되어 一八一四年에는同大學의형전講演者로서榮譽을얻게되었다. 알로드의代表的著書는 24年間の피가나는勞作書에出た。

版한 그의 「회람文 新約全書
註解」인데 이 책은 그後、
神學研究者들의 必讀의 書로
愛讀되고 있다.

이 찬송가의 作曲은
博士 엘베리가 작곡하였으
며 그는 一八一六年、잉글랜드의
컨터베리에서 出生하여 一八

알포드는 그 성격이 몹시
奇麗스위儀式的 禮儀를
어하여 소탈하게 살기를 즐
겼다. 그가 生前에 自己의墓
合唱學校에서 받았다. 그後進

標을 만들어 碑文에 「예루 살렘으로 가는 나그네의 주 막」이라고 적고 잠은 그의 독특한 성격의 一面일것이다. 그는 讚頌歌를 짓고 또 讚 頌歌集을 편집도 하였으나 었다.	學하여 一八三八年에는 옥스 포드大學을 卒業하고 一八四 ○년에는 同大學에서 音樂博 士學位를 授与받았다. 一八七 一年에는 騎士의 칭호까지받 았다.
---	---

이 시련을 이기고 나가고있다.

獻金한教会

名古屋教会 五七、〇〇〇円

布施教會 五六、五〇〇円

岡崎教会 二〇、〇〇〇円

豊橋教会 一五、〇〇四

横須賀伝道所二、二〇〇円

礼幌教会
一一、四〇〇円

熊本教会 五三、七〇〇円

下関教会 三〇、〇〇〇円

有限会社 コノミプロセス

東京都荒川区荒川三丁目25番1号
銀映ビル
電話 03 (801) 5936・(807) 3473

三信商事株式会社

不動産部 千葉県船橋市前原西1-25-18
電話 0474 (76) 6181 ~ 2 番
レストラン部 千葉県八千代市米本1448-1
電話 0474 (88) 5579・1613番

本山商店

堺店 堺市西湊町2-1-15
電話 0722 (41) 2144 番

美原店 南河内郡美原町大保 213-1
電話 0723 (62) 3315 番

